



✓ 진로교육 바로 알기

자녀와의 대화, 이렇게 해보세요!

고등학교 시기에는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. 대화를 통해 진학과 진로, 취업 등의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. 그렇다면 자녀가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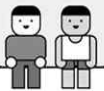
먼저, **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**가 필요합니다. 부모의 신뢰와 긍정적인 시선은 어떠한 대화 기술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혼내기보다는 자녀의 속상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노력한 만큼 인정해준다면, 자녀가 또 다른 장벽을 마주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.

또한 부모님께서 **자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**을 보여준다면, 자녀는 보다 편하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털어 놓게 될 것입니다. 성적 문제, 진로나 직업 선택, 학과 선정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인 후,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, 자녀는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 **부모님의 감정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표현**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, 자녀와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감정을 표현할 때는 “**엄마는 ○○가 엄마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. 엄마 말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.**”라는 ‘나-전달법’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.

(출처: 국가평생교육진흥원, 「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 고등학교편」)

✓ 진로상담, 똑..똑..



예비 고3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?

Q 고2 문과생을 둔 엄마입니다. 요즘 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한창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데,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 곧 고3이 되는 아이도 저도 마음이 왓지 초조해지고 자꾸 긴장이 됩니다.

A 부모님들은 자녀가 크는 속도에 맞춰 그 시절을 또 한 번 살아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들이나 봅니다. 이제 곧 아이가 고3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해지시죠? 하지만 부모님께서 여유 있고 의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, 마음을 편히 갖고 자녀가 예비 고3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

우선, 자녀가 문과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진로를 고려하고 있는지 **관심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** 필요가 있습니다.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을 테니 **희망하는 진로와 관련 있는 대학·학과를 찾아보고,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**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과 선발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**비교과활동도 꼼꼼히 준비해** 나가야 하겠습니다. 또한 자신이 왜 이러한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고,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, 이번 2학기를 **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** 나가는 시간으로 **활용**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

(출처: 커리어넷(www.career.go.kr) > 진로상담 사례)

「조리」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과 관련 학과를 소개합니다

[새롭게 등장한 직업 소개 : 푸드스타일리스트]

☞ 직업 개요

- 푸드스타일리스트는 각종 소품, 그릇,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음식이 돋보이게 연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최근 맛과 멋을 모두 충족하는 '미식'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직업인 푸드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☞ 직무 내용

- 조리사가 만든 음식이 공간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연출해내는 일을 하며, 이 외에도 레스토랑의 메뉴를 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일, 잡지나 요리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는 일도 합니다.

☞ 관련 흥미 및 적성

-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요리 능력,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, 음식과 소품의 장식 능력, 음식의 다양한 물리적·화학적 변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. 또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무거운 식자재들을 정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(출처: 커리어넷 직업 정보)

[진로탐색을 위한 대학교 학과 소개 : 조리과학과]

☞ 학과 특성

- 현대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·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해 공부합니다.
- 이론 및 실기를 겸비한 세계적인 조리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

☞ 주요 교육 내용

- 조리과학 : 식품과 조리 관련 기초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조리과정 중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물리적·화학적 변화에 관한 제반사항
- 식생활 관리 : 올바른 식생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식단의 계획, 작성, 실행,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
- 위생관계법규 :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위생 관련 법규의 제정과 시행

☞ 졸업 후 진출 분야

- 기업체 : 외식업체, 호텔, 식품업체, 항공사, 테마공원 등
- 연구소 : 식품·영양 관련 국가 연구소, 식품·의약 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
- 기타 프리랜서 활동 및 레스토랑 운영 등 (출처: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학과정보)

✓ 진로소식



복잡한 진로고민, 진로솔루션으로 해결하자!

이달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진로고민을 남겨주세요. 진로·진학(학습)·직업 등 각 분야의 커리어솔루션들이 종합 진로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.

2015년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

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세계를 탐구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

<공모 요강>

- ◆ 주제 : 나와 너, 그리고 우리! 꿈을 잇다
- ◆ 모집 부문
 - 온라인 포트폴리오(인터넷신문, 웹매거진, 온라인 브로슈어 등)
 - 동영상 콘텐츠(UCC, 영화, 다큐멘터리, 애니메이션)
 - 웹툰(카툰)
- ◆ 참가 신청 : 2015. 9. 4(금) ~ 11. 2(월)까지
- ◆ 출품작 제출 : 2015. 9. 23(수) ~ 11. 2(월) 15:00까지
- ◆ 발표 : 2015. 11. 12(목)
- ◆ 시상 : 국무총리상 및 교육부장관상 등 수여(11.21 시상식 예정)
- ◆ 주최/주관 :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
- ◆ 후원 : 교육부

본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요강은 커리어넷(www.career.go.kr) 또는 에듀넷(www.edunet.net)에서 확인하세요!

대상	중·고등학생
9월의 주제	내 꿈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매월 초, 새로운 상담주제 게시
이용방법	① 커리어넷의 진로솔루션 접속 pc: '커리어넷(http://career.go.kr/)' 접속 → '커리어넷 진로상담' → '진로솔루션' 모바일:  ② 상담주제 확인 및 관련 진로고민 등록 ③ '진로솔루션' → '전문가 답변 확인하기'에서 솔루션 페이퍼 열람 *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